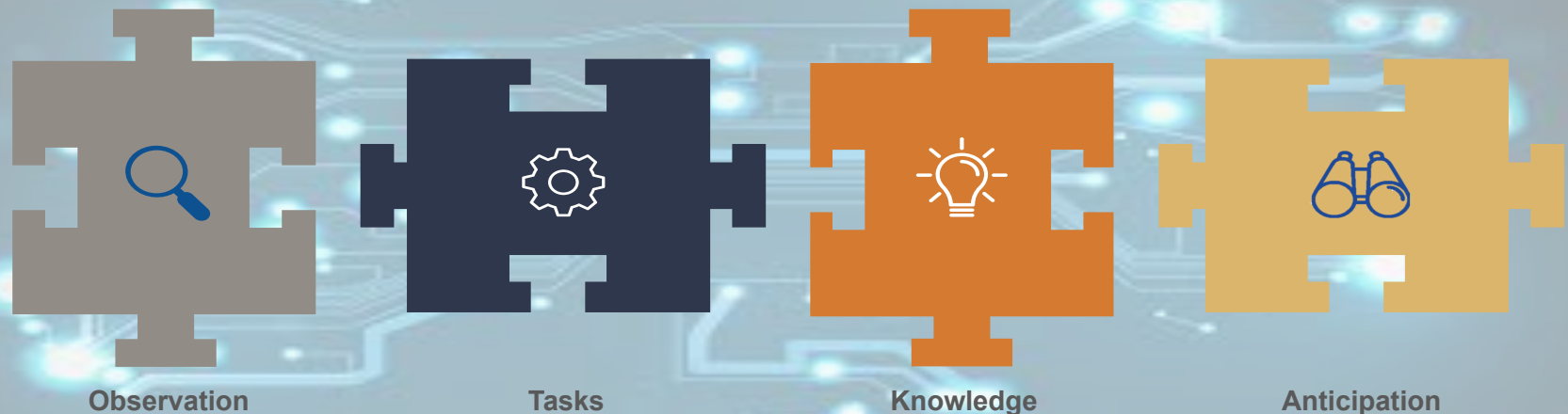


안전경영과 안전문화의 시스템적 통합



Integration of System Resilience and Safety Culture

배계완(부산가톨릭대), 윤완철(KAIST)
한국시스템안전학회 (KSSS)

테일러와 절차화 (Proceduralization)

❑ Fridrich Taylor는 규칙과 절차가 과학적 지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함

-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함.
- 질서, 균일성, 예측가능성을 내포.
- 위험의 관리와 제어의 바탕이 됨

❑ Taylorism이 남긴 작업안전에 대한 관점

- 작업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세부적으로 명시된 지시를 듣는 것이 필요함
- 그들은 감독, 감시가 필요함 (자율과 진취성은 불필요)

❑ 하나의 최선의 방법이 존재한다는 가정 - 벗어나는 것은 '위반'

- 징계와 계도가 필요하거나, 규칙을 수정하여야 함
- 규칙에의 집착

규칙과 절차 - 현실적 적용

□ 작업절차에 관한 네덜란드 철도 회사 조사 통계 (2013)

- 3%의 근로자가 절차 이용, 50%는 한 번도 이용 안함
- 50% 중 47%는 현실적이지 못해서, 29%는 질책용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라 응답
- 절차를 지키면 일정 내 작업 완수 불가능하다 (95%)
- 너무 규칙이 많다 (79%). 규칙이 너무 복잡하다 (70%), 규칙이 종종 상충된다 (77%)

□ 규칙에 집착하는 것은

- 일을 완수하기 어렵게 만들고
- 새로운 상황에 대한 감각과 자유로운 사고를 억누르며
- 신중함이 결여된 데 대한 반성과 문제 의식이 약화되고
- 규칙 준수를 강요하는 관료적인 통제 방식을 강화하게 됨

□ 작업절차에 대한 새로운 이해

- 절차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심지어 충돌 경우도 있음 (세월호, Piper Alpha)
- 절차는 행동을 지원하는 자원으로 사용되어야
- 절차를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실제적 기술에 속하는 인지적 활동임
- 절차와 현실 작업의 차이가 늘 발생함. □ 지속적으로 찾고 이해하여야 함